

KG케미칼, 중국과 화학비료 합작투자

KG케미칼은 중국 화학비료 생산기지 진출을 위해 중국 Pao Tzu Chen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월17일 공시했다.

KG케미칼 60%(300만달러), 파오추첸 40%(200만달러)의 합작투자 형태이며, 계약기한은 외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년간이다.

<화학저널 2005/01/19>